

미리가본 西紀 2000年

-西紀 2000年에 거는 기대는 실로 크다. 앞으로 15年동안 科學.....○
-文明은 지난 1世紀에 버금가는 發展을 가져와 西紀 2000年에는.....○
-상상치도 못한 事實들이 現實化될 것이라고 야단들이다.○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發展된다는 것인가. 本紙 編輯.....○
-者は 15年을 건너뛰어 西紀 2000年으로 달려가 보았다.....○
-西紀 2000年. 編輯者가 달려간 西紀 2000年은 과연 1985年을.....○
-살던 사람들이 야단을 떨만도 했다. 한마디로 科學文明 王國을.....○
-이루고 있었다. 西紀 2000年の 모습을 分野別로 스케치해 보았.....○
-다.....○
-編輯者 註.....○

● 교통 ●

8시간에 미대륙 기차로 횡단

2000年에도 자동차는 여전히 가장 인기있는 교통수단이다. 동력은 지금과 같은 휘발유가 아닌 전기였다. 디자인도 단순하고 스피드는 지금과 비교도 되지 않을만큼 빨라졌다. 그리고 레이더, 기화기, 머플러, 기어 또는 클러치등이 필요없었다.

자동화된 초고속도로에 들어서면 160km란 평균 시속으로 목적지까지 눈 스톱으로 안내되었다. 도중에 교장난 차와 부딪치거나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낼 염려도 없었다. 모두 컴퓨터의 지시로 움직이기 때문에 야무 사고 없이 목적지까지 유도된다.

시속 480km의 무서운 스피드로 계단모양의 궤도를 달리는 에어 트레인(공중열차)이 또한 각광받는 교통기관이었다.

8시간이면 미대륙을 횡단한다. 이것은 모노레일과 에어컷션의 원리를 조합해서 약 2.3mm의

두께로 된 에어컷션 위를 달리고 있다.

복잡한 도심지에선 지하터널속을 공기층의 탄알이 총신 속을 빠져나가듯 질주하는 공기열차가 많은 사람들을 실어나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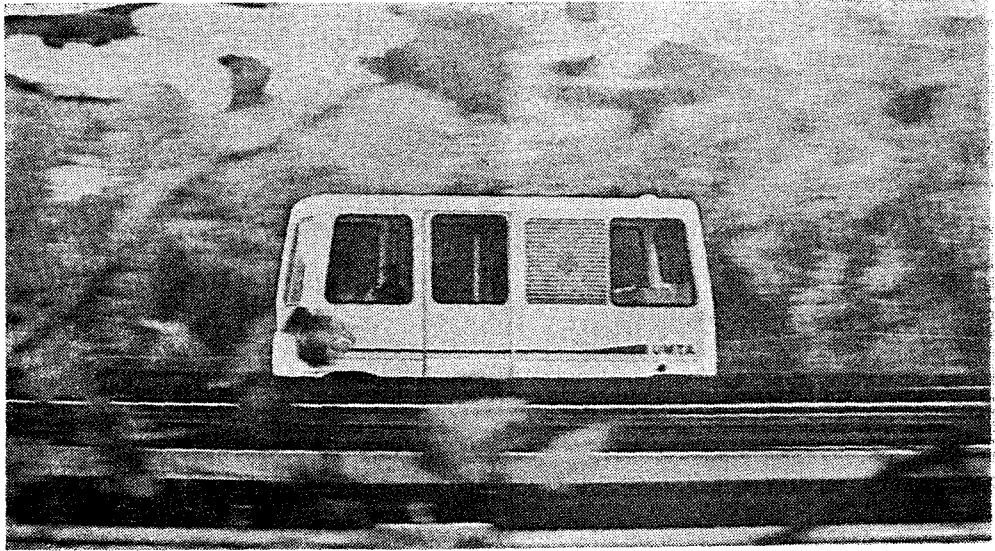
6시간으로 세계 일주

수직이착륙기 VTOL이 등장하여 널리 활용되고 있다. 고층빌딩 옥상이나 정원에 그대로 내리고 앉는게 특징이다.

또 새가 날개를 펴고 나르는 것과 비슷한 비행선이 상승기류에 실려 나르는 '소링 크래프트'란 것이 바로 이것인데 상승기류가 없는 곳에선 태양전지 역할을 하는 가벼운 패널로된 날개가 전기모우터를 돌려 프로펠러를 회전시키므로서 나르고 있다.

이같은 것들은 모두 단거리를 여행할때 편리한 것이고 서울에서 파리, 뉴욕 같은 곳을 갈때는 아주 빠른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꼭 알맞는 것이 마하 8(음속의 8배) 이상의 무서운 스피드로 나르는 HST란 것이 있다. HST는 단 3시간으로 서울에서 세계 어느곳이라



〈미국 교통부 대중교통국(UMPA)에서 개발한 최신형 무공해 경량 전동차〉

도 날라 도착할 수 있고 6시간이면 세계를 일주하고 제자리로 되돌아올 수 있다.

이들 제트기는 시속 32km인 태양의 자전보다도 빠른 스피드로 대기권을 빠져나와 낮에도 밤과 같이 어둔 우주공간을 날라 목적지를 향해 나르고 있다.

‘로켓트 수송’이란 새로운 화물수송방법이 개발되어 널리 보급된다. 서울에서 화물을 아침 10시에 붙였다면 국내라면 로켓트에 실려 30분 이내에, 세계 어느곳이거나 1시간 이내에 다 수취인이 사는 곳의 우체국에 도달된다.

또 각종 통신은 전자적으로 처리되게 되어 있어 포스트에 넣은 편지가 비행기에 실려 배달되던 것이 이젠 빛과 같은 속도로 배달된다. 단 소포는 전자로 바뀌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HST나 로켓트 수송방법으로 수송된다.

또 그렇게 급하지 않은 화물이라면 쏘세지 모양으로 된 거대한 플라스틱제의 잠수함에 실어 바닷속 해류에 띄우고 레이더로 조정, 감시하면서 곳곳에 있는 호버크래프트가 밀어 아주 싸구려값으로 목적지에 수송된다.

움직이는 길

움직이는 도로가 도심지의 중앙에 생겨나 경이로운 교통기관이다.

에스카레이터를 평면으로 길의 인도에 간 것이다. 누구든지 이 움직이는 길에 올라서면 저절로 목적지 부근에 도달된다. 또 모든 경보와 뉴우스를 3만 6천km나 지구에서 떨어져 있는 우주공간에서 인공위성이 정확하게 각 가정의 TV에 알려준다.

천기 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무엇인가 이변이 일어나면 이같은 사실을 가정의 TV에 컬러로, 그리고 입체적으로 나타낸다.

또 전화를 걸면서 TV를 보듯 전화기에 부착된 스크린을 통해 상대방을 컬러로 보면서 뉘새까지 느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홀로그래피도 등장했다.

이것은 방안에 놓여진 사람 크기만한 스크린 위에 데스펙터클을 전개하는 것이다. 신문, 잡지, 일반서적에 있어서도 홀로그래피가 등장했다.

이는 반사광선의 ‘위상(位相)정보’를 내장하는 특수화면으로서 쉽게 말해 평면적인 화면이 아닌 입체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으로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사진의 앞면에 서있는 듯한 나무가 자기의 등 뒤에 비추어지기도 한다.

일정한 요금만 지불하면 세계 방방곡곡 어떤 사람과도 직접 통화를 할 수 있다. 전부가 자동이므로 교환수 또한 필요없다. <계속>